

세계문화유산 전문가 서울 총집합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10월 2일부터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주제

이태녕 교수 '장경각'에 숨은 보존 기술 발표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등 세계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심을 비롯해 2000여명의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20회 세계 박물관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 이 대회는 1만9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박물관협회(이하 ICOM)가 개최하는, 문화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적인 행사다. 첫 대회인 1948년 파리 대회 이래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10월 2일 경복궁 전야제를 시작으로 6박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국제위원회분과회의와 주제별공동회의, 스터전시, 문화 탐방 등과 ICOM 임원선거가 예정돼 있다.

국제위원회분과회의는 ICOM 소속 국제위원회가 각각 주최한다. 4일부터 6일 사이에 국제보존과학위원회(이하 ICOM-CC), 국제고고·역사박물관위원회(이하 ICMAH), 국제공공박물관생태계모범위원회(이하 ICMEMO) 등 29개 분과별 회의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5일에 열린 ICOM-CC 분과회의는 '무형의 보존: 물질과 상징의 보존'을 주제로 물질문화의 무형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흥미를 끈다. 흔히 무형자산

의 보존이라 하면 비물질적인 대상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물질문화가 담아낸 무형적 가치를 주목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가 '팔만대장경의 보존'이라는 주제 하에 장경각에 숨은 보존기술을 발표하고,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대장경전산화를 보존 사례로서 언급한다.

또 4-6일에 열리는 ICMAH분과회의에서는 '고고학과 박물관: 유·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주제 하에 유·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수집·보존하며, 어떤 방식으로 전시해 보자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또 송계현 복원박물관 관장이 '가야문화', 인병선 직물생활사박물관 관장이 '백제 직신', 서오선 국립부여박물관 관장이 '용봉항로'를 주제로 발표하는 등 우리 문화의 멋을 널리 알리는 기회

도 마련된다.

반인류범죄 기억 및 교육을 통한 평화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ICMEMO분과회의도 이채롭다. 범죄사를 기업관에서 만나는 것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도 전쟁기념관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전혀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4-6일에 열리는 이 분과회의에는 전쟁과 범죄 등을 주제로 한 기념·박물관 관계자들이 참가해 2차대전 전범 처리 및 기념관 현황 등을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장성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사무총장이 '2차대전 일본군 정신대 한국인 여성 문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주제별 공동회의에서는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호' '디지털유산과 미래의 박물관' 등을 주제로 대회 참가자들이 다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문화유산 정보교류의 장... 3년 마다 개최

세계박물관대회란?

유네스코 자문협력기관인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개최하는 박물관대회는 국제박물관계의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이다. 1948년 파리에서 '문서기록, 보존과 교류'를 주제로 시작돼, 3년마다 열리고 있다. ICOM은 1946년 미국 뉴욕주 버펄로

박물관 관장이던 햄린(Chauncy J. Hamlin)이 창설한 기관으로, 유물·유적과 환경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한편 박물관 사업을 통해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이다. 1948년 파리에서 '문서기록, 보존과 교류'를 주제로 시작돼, 3년마다 열리고 있다.

현재 ICOM에는 전 세계 150여 개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장·큐레이터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가칠년명금동여래입상(국보 제119호)은 6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고구려 불상.

눈으로 보고 느끼는 우리역사 고구려

국립중앙박물관 특집전시중

"국사 교과서에 있는 유물들이 여기 다 있네요"

9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 건우) 특집전시 '고구려'를 찾은 중·고등학생들이 '활갑 기마병' 모형을 신기한 듯 들여다본다. 이번 전시는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실상을 널리 알려 고구려사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자 특별히 기획했다.

이번 전시에는 1963년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연가(延嘉) 7년'이라는 분구가 새겨진 고구려 금동여래입상(국보 119호·높이 16.2cm)과 중국 길림성 집안시 통구12호분 벽화 모사도(284×164cm) 등 유물 80여점이 선보였다.

특히 연가7년명금동여래입상은 중국 북위(北魏)의 불상 양식을 따르면서도 옷의 띠 매듭 끈을 길게 내리지 않고 있는 등 고구려의 특징을 보여준다. 광배 뒷면에는 539년 또는 599년으로 추정되는 연가 7년에 나 람에 있는 풍사(風寺)라는 사찰의 스님들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4줄, 47자로 기록돼 있다.

이 밖에 도광대왕 사후 제사 때 쓴 그릇을 신라 사신이 경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호우 등 고구려의 영향을 보여주는 백제, 신라, 가야지역 유물들도 전시된다.

이 전시는 중앙박물관 고구려실에서 내달 17일까지 열린다. (02)2077-9643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펜화로 만나는 절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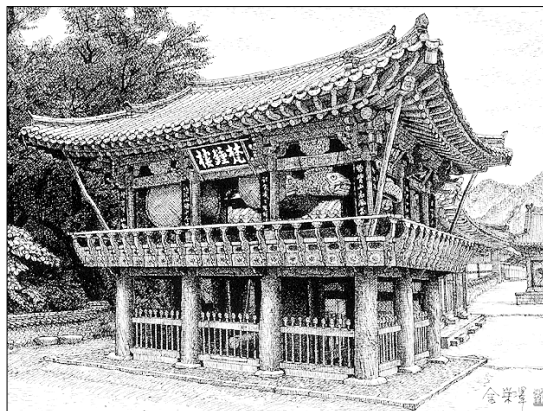
김영택 씨 현대백화점 초청 전국 순회전

10월 1일부터 서울 부산 등

전통 사찰의 건축미를 펜을 이용해 섬세하게 표현한 김영택의 '펜화기행-현대백화점 초대전'이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서울, 부천, 울산, 부산 등 5개 현대백화점 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씨는 문경 봉암사 일주문, 합천 영암사지, 장성 백양사 범종각,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 쌍봉사 3층목탑 등 전통 사찰의 아름다움을 정교한 펜화로 묘사한 50여 작품을 선보인다. 물론 이 중에는 사찰 건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창 요구수

정, 청송 방호정, 영주 소수서원 취한대, 경주 독막당 계정,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담양 소재원 광종각 등 전통 건축물도 들어 있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사찰, 탑, 석등, 소나무, 누각 등은 세밀하다 못해 언뜻 사진처럼 보일 정도로 정교하다. 그런 세밀한 기운이 녹아나는 그의 작품을 마주 대하면 마치 현장에 직접 가서 건축물을 감상하고 있는 듯한 일체의 교감을 느끼게 한다.



김영택 씨의 펜화 그림 '통도사 범종루'.

순회 전시는 △서울 목동점 (10월 1일~17일) △부천 중동점(10월 18일~25일) △서울 천호점(10월 26일~11월 1일) △울산점(11월 중) △부산점(11월 중)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9>

삶과 삶의 거리 (3)

근대사회가 추구하는 지식(知識) 발전과 대량생산을 통해 우리의 삶은 아주 편해졌다. 그에 따라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다 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핵전쟁의 위험,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공부를 하며 지식을 쌓아간다. 지식이란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해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삶이다. 최근 모임에서 만난 철학교수는 불교철학에 대한 책을 냈다. 아마도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책이겠지만, 어차피 불교가 종교라면 과연 그 책이 우리의 삶을 얼마

또 재생산하는 데 찬사를 보낼 뿐, 자신들의 삶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식 생산 외에 삶을 자신의 삶과 일치 시키는 데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런 것을 소중하게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사회, 아니 수행의 종교교라는 불교마저도 이러한 면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하다. 책 읽어 쓰고 말 잘하는 스님은 대접받고, 조용히 일상의 삶 속에서 포교와 수행에 힘쓰는 스님들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풍토마저 보인다.

이미 우리가 지닌 불필요한 삶을 조금씩 버리고 필요한 만큼의 삶과 자신의 일상적 삶의 거리를 줄이는 방법은 좋은 책이겠지만, 어차피 불교가 종교라면 과연 그 책이 우리의 삶을 얼마

삶의 생산이 중요한 덕목 아니라 불필요한 삶 버리는 지혜가 필요

나 풍요롭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금강경> '사구계'의 한 구절만이라도 생활 속에서 자화화 되어 있다면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불교철학 책도 필요 없을 터인데.

지식(知識)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매우 소중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삶의 생산만을 가장 중요한 덕목(德目)으로 생각하는 문화 속에 있다. 행복하기 위해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미적분학을 쓸 일이 없거나 평생 다 쓰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삶의 추구 속에 모든 가치를 무뎠서 부처님 말씀에 전하거나 듣는 이도, 생명과학을 직접 연구하거나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도 그저 많은 양의 지식을 창출하고 배우고

한다. 그리하여 지식 창출과 생산성 추구를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이 시대 속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과잉된 삶을 만들어 내거나 쫓으며 살기 보다는 자신의 삶을 찾아 즐겨야 한다.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면서 행복하려면 유희(遊樂) 정신이 필요하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하루하루가 좋아(日是好日)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지, 단지 넘치는 일만이나 평생 다 쓰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삶의 추구 속에 모든 가치를 무뎠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이도, 생명과학을 직접 연구하거나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도 그저 많은 양의 지식을 창출하고 배우고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더 이상의 획기적인 침술서적은 없다!!!

사암침술과 맥

침술인의 필독서(必讀書)

1. 정확한 취혈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등분법)
2. 황제 내경 맥진법을 하루에 터득 할 수 있다
3. 복합처방으로 난치병도 두렵지 않다
4. 一鍼에 완치 시키는 즉효 요법이 있다
5. 중풍맥을 건강한 맥으로 즉석에서 교정한다
6. 100가지 질병 치료법을 쉽게 터득한다(고급과정)

※ 특이 없는 막연한 공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사암침술과 맥

김매용 저
505쪽 4×6판
판매가 80,000원

구입문의: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마태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 고급과정)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정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중합침술

▶ 개강: 2004. 10. 4. 월 (주·아간반: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놓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온과 월온은 물론 일온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금요일 (수시접수)

사암침술학회

장소: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011-307-2975, 02)2267-9136

중국 청도 장안사 공양주 모십니다

장안사는 중국에 사찰을 세워 한국 불교의 전통과 큰스님들께서 이룩하신 위업을 지켜 가겠다는 뜻을 세우고 사부대중이 합심해 불기 2548년 9월 2일 재불님의 가피로 중국 최초 한국의 절 장안사 청도 본원이 원만히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안사 청도 본원에서는 사찰음식을 통해 해외 포교에 전력하실 공양주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자격
 - 1) 해외여행과 중국 장기 체류에 지장이 없으신 분
 - 2) 한국 음식 조리사 자격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분이나 사찰 음식에 조예가 깊으신 분
 - 3) 신심을 가지고 해외 포교활동에 전력하실 분
 - 4) 남·녀 구분, 연령제한 없으나 신체 건강하신 분
2. 급 여: 상당 후 결정
3. 제출서류: 1) 이력서
2) 주민등록 등본
3) 자격증 사본
4. 서류제출: 장안사(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마감: 2004년 9월 30일 까지
6. 연 락 처: 019-9232-4788
031)901-1954

장 안 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마	140,000 ~ 170,000
2. 무명(역물, 순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마 170,000
3. 면 솜이불 누비(한국산 솜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마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마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울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마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	--------------

 실크 · 금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조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전시장: 053-256-0108
공 장: 053-425-4449
휴대폰: 016-597-4449
011-809-2398

아름승복